

201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7.24(목) 15:00~16:3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세월호 사건관련 방송의 정확성에 대해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실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오해가 없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연합뉴스가 직접 만드는 뉴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시청자는 연합뉴스와 뉴스와이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 할 것임. 시청자가 두 조직을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뉴스와이에서도 심층적인 국제뉴스를 기대할텐데, 뉴스와이에서는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음. 경쟁 채널에 비해 국제뉴스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심층적인 국제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최현철 위원)
- 7월 13일 닭고기값 폭락과 연계하여 교촌치킨 가격인상을 비판 내용에서 교촌 치킨 가격인상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들이 항변하는 '운영비용 상승분'과 닭고기값 하락에 따른 '원자재값 하락분'을 같이 비교·분석해야 함. 경제기사를 보도 할 때는 철저히 경제논리에 부합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용우 위원)
- 7월 16일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인터뷰형태로 스타벅스의 커피값 인상에 대해 비판내용에서 경제논리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었고, 이해당사자중 한쪽의 입장만 대변한 내용이었음. 스타벅스측이 분명히 커피값 인상의 요인으로 매장임대료, 인건비, 제품 개발비, 그리고 국제원두값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고 하면서도 출연패널과 앵커들이 시종일관 국제원두값이 올랐다는 명분으로 커피값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한 가지 원 인만을 들며 내용을 몰고가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졌음. 패널도 인정하듯이 원두가의 원가비중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원두값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제시한 인상요인, 즉 매장임대료, 인건비, 제품개발비 등이 진짜로 가격을 인상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함(이용우 위원)
- 7월 20일 최경환 경제팀의 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남재건축 호가가 몇 천만 원씩 급등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꿈틀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다소 침소봉대라는 느낌과 함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또 한 번의 보도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했음. 일년에도 몇 번씩

새롭고 대대적인 부동산대책을 경험하면서도 주택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 등으로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 가계부채, 소비침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경기 변화 등 근본적이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부동산문제가 경제부처 수장의 규제완화 언급 몇 마디로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 같음. 일반국민들이 언론의 부동산 전망을 믿고 집을 샀다가 하우스 푸어가 되었다는 인터뷰나 주변의 얘기를 종종 듣는데.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일수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보도행태가 요구됨(이용우 위원)

- 국과수 “DNA 완전 일치... 유병언 최종 확인” 뉴스 내용에서 국과수 발표가 주된 내용인데 중간에 경찰의 유전자 감식의뢰 내용이 나오면서 의미 파악이 쉽지 않았음. 또한 경찰의 의뢰에서 결과를 받는데 40일이 걸렸다는 내용과 국과수는 하루도 안 돼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은 바로 이해하기 힘들었음(이현규 위원)
- 7월 12일 오후 4시 뉴스1번지에서 날씨를 보도하며 주변 물놀이를 소식을 보도하는 중 용인 ‘캐러비언베이’를 소개하는데 너무 장시간 자세히 소개할 뿐더러 소셜커머스를 통하면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광고 수준의 방송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았음. 또한 소셜커머스로 인한 공연계의 폐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도에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었음(이용진 위원)
- 7월 8일 세월호 사태 후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이 많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음.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기술’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국민인식’과 안전에 관한 ‘정부정책’ 등이 함께 삼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된 캠페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차제에 안전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생활에서 인지해야 하는 다양한 안전상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아가 정부도 국민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까지 제시한다면 보다 신뢰성 높은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함(이용우 위원)

▲ 뉴스Y 개선 및 유의사항

- 7월 23일 아침뉴스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갑의횡포 단독보도 내용에서 유통 관련 법조문을 화면에 CG로 처리해 전달감이 좋았으나 갑의 횡포를 이야기하기에는 사례가 단조로웠음(강대인 위원장)
- 보도 사진 중 중요한 사진을 설명하는 ‘클릭! 베스트 컷’ 프로그램은 신선하고 스틸 사진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도 적절하여 재미있는 프로그램임. 진행자의 질문은 적절한데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음.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에서의 언어 전달력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음. 특정 단어의 반복도 많고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져 사진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데 제약이 있음. 오히려 탄탄하게 멘트를 만들어 놓고 화면이 나갈 때 말하듯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음(양승찬 위원)

- 7월 16일 뉴스와이 10의 향후 10대 사양직업은? 에서 향후의 유망직종과 사양직종을 뉴욕특파원의 보도로 미국의 전망을 보도하여 직업에 대해 전망할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임. 미국의 발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추세도 함께 정리해 주었으면 더욱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듯함(성낙용 위원)
- "신율의 정정당당"프로그램은 정치, 시사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7월7일자 "유병언과 김일성 체력비교" 와 7월 21일자 "유병언과 사라진 여인들"의 프로그램은 가십성 보도로 보임. 특히 "유병언과 사라진 여인들" 제목은 마치 3류 주간지 제목 같아 보도채널로서의 격을 떨어뜨림(김용주 위원)
-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것은 범죄 형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대책을 강구 하는 등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공성이 있으나, 범죄자 신원보도는 사회적 유익이 없기 때문에(공공성이 없음) 범죄자 신원 보도는 익명 보도하는 것이 원칙임. "유병언과 사라진 여인들"의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이 무슨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유병언의 3째 처남댁 여의사 윤두화의 사진과 강남에서 오나가나 설렁탕 집 경영과 근무하는 병원명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유병언이 최근에는 40대, 미모의 여자 간호사도 함께 다닌다며 이 간호사는 유병언과 어떤 사이일까 하는 등 시청자에게는 양모 간호사를 내연녀처럼 보여지도록 보도되었음(김용주 위원)
- 7월 8일 맹찬형의 시사터치에서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장부 속 검사는 이석기 사건 담당검사라고 하는 보도는 부적절했음(김용주 위원)
- 뉴스 채널의 성격상 주로 단신을 다루는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선거관련 단신 보도 속의 주요 프레임이 '여야, 김포서 지도부 회의 재보선 수도권 총력전', '여야 일제히 재보선 총력전' 등. 전쟁, 전투와 관련한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7월 20일(일) 15:00 뉴스Y에서 지방선거방송을 진행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원유세를 방송하는데 근 3분을 실황중계처럼 보여주고는 다른 뉴스로 진행이 바뀜. 편파보도라는 비판을 받아도 될 정도로 보여졌음.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유의해야 할 것 같았음(이용진 위원)

▲ 화면 구성 등 개선필요

- 7월 9일 뉴스현장 14에서 태풍 너구리 북상 관련 뉴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이재동 기자) 연결 시 앵커 연결 멘트 후에 화면이 나온 기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송진행이 자연스럽지 못했음. 방송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멘트를 하거나 연결을 끊고 다시 시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였음. 기상전문가가 태풍 너구리의 진로와 일자별, 시간대별 강

- 도, 태풍 너구리의 원인을 시각 효과를 가미하여 설명한 것은 유익하였음. 태풍 영향을 받을 경우의 대처방법까지 알려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듯함(성낙용 위원)
- 7월 15일 뉴스현장 13 권은희 공천 후유증. 전체 판세에 영향주나의 내용으로 패널의 발언이 진행되는 중 박스 화면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이 나옴. 신중한 화면처리가 필요함(성낙용 위원)
 - 7월 18일 뉴스워치 스포츠 소식에서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 경기 관람은 관중을 인터뷰하는데 “회사에 결근하고 야구 보러 와서 얼굴이 나가면 안 된다”는 멘트와 함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인터뷰를 함. 의외의 재미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많은 관중 중에서 얼굴을 가려야 하는 사람을 굳이 인터뷰 할 필요가 있는지? 보다 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6월 30일 오후 5시 28분 단독보도를 통해 BMW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수리를 맡긴 자동차를 무단 사용한 내용을 전함. 이 과정에서 차량 탑승 장면 처리가 재연을 통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임. 효과까지 덧붙여 선정적인 화면이 구성된 것 같음. 만약 기사와 관련한 재연 화면을 구성한다고 하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7월 22일 자정 뉴스, 유병언 사망 관련 보도에서 숲속을 걷는 사람의 모습에 영상효과를 넣었는데 되도록 뉴스 보도 장면을 구성할 때에는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국제 뉴스 부문은 연합뉴스의 해외 특파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방송사보다 차별화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 국제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특파원을 순발력 있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파원 리포트를 삽입할 때 전반적으로 통일된 제작 기준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음. 지역에 따라 음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녹음과정에서 표준화된 기술적 조건을 마련하여 특파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보도 내용과 화면의 불일치 방송이 자주 보여짐 7월 3일(목) 투나잇뉴스에서 흥대전철역 침수 현장을 보도하는데 화면은 건설현장 사고 내용이 보여졌고, 7월 24일(목) 모닝Y에서는 현장 날씨를 보도하며 빗길 자동차 사고 현장을 이야기 하는데 화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음(이용진 위원)

▲ 자막, 부적절한 표현 등 주의해야

- 기자와 리포터의 언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음.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나 제작방송인 경우이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만 항공사고에 대해 조종사를 설명하면서 20년 운항경력의 조종사라고 하지 않고 20년 운항경력을 갖춘 ‘인물’ 이라고 특이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음(강대인 위원장)

- 7월 24일 아침 뉴스 유병언 사건 관련 보도중 아들 대균씨 자수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어머니 권윤자씨도 구속되고 큰형 병일씨도 구속이라고 나왔으나 큰형 병일씨는 대균씨의 큰형이 아닌 큰아버지라고 반복 보도되었음(강대인 위원장)
- 경상도 지역 구제역 방생관련 보도내용에서는 불과 2달 만에 청정국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냐. 는 내용이었는데 헤드라인 제목을 소개하면서 청정국지위를 '잃었다'라고 나와서 본문의 기사 내용과 헤드라인의 내용이 일치 하지 않아 혼란스러웠음(강대인 위원장)
- 속보자막에서 띠자막과 속보가 함께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선을 빼앗겨 헤갈리기도 함 이는 타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함(김연화 부위원장)
- 7월 21일 북한은 오늘 장기자의 이슈따라잡기 화면에서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 전문기자, 북 AG불참카드 라는 자막과 함께 밑에는 뉴스자막이 흐르고 있었음 너무 많은 자막으로 인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움(김용주 위원)
- 같은 내용의 지나친 중복 방송은 너무 거북함. 7월 18일(금) 프로야구 올스타전 소식이 7월 20일(일) 오전까지 뉴스속보 자막에 보도되는 등 전반적으로 속보라는 표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보도의 신속성이라는 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됨(이용진 위원)
- 정부의 정책이나 사건과 사고의 발표자들의 이름과 직책을 자막처리하지 않을 때가 있음. 예를 들면, '유병언 사망' 발표 시 순천 경찰서장은 이름과 직책이 자막처리 되었지만, 과학수사팀장은 여러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직책이 전혀 자막처리 되지 않아 답답했음. 인물의 이름이나 직책을 제대로 자막처리해 주시길 바람(최현철 위원)
- 뉴스 헤드라인 선정 시 예를 들어, 표절 논란에는 '레퍼런스'로 맞대응?, 컬링여자대표팀 '카드깡'으로 운영비 총당 등의 표현은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문구로 대체가 필요함(이헌규 위원)

▲ 앵커, 기자, 출연자 관련 의견

- 7월 6일 이슈본색에 출연한 토론자들의 기본적인 양심인 언행이라든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의와 품의를 지키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함(김연화 부위원장)
- 아침 뉴스, 특히 뉴스와이 9에서 남성과 여성 앵커가 서서 주요 뉴스 제목을 읽은 후 걸어서 들어가 앉아서 진행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음,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일 지라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임. 앵커의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람(최현철 위원)
- 7월 16일 뉴스와이10에서 유병언 회장 도피관련 대담. 황태순 정치평론가, 정태원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패널 참석. 앵커와 패널들 간의 대담시 서로의 발언

이 끝나기 전에 끼어드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자유로운 대담 형식이지만 발언 중에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거북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프로그램기획 및 기타 의견

-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때로는 동일한 뉴스가 지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차별화를 주기위해 계절에 따른 대중이용시설 등의 소비자 안전관련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좋을 것(김연화 부위원장)
- PC나 모바일로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접속할 경우 로딩이 너무 길거나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오류가 너무 잦거나 속도가 너무 느려, 시청에 불편함을 겪음. 많은 시청자들이 TV보다는 홈페이지(PC, 모바일) 접속을 통해 뉴스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속도나 오류가 잦은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껴 시청자들이 외면할 것임. 특히 와이파이로 접속할 경우에는 더욱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헌규 위원)
- 뉴스Y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이 간소하고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나 보고 싶은 기사나 방송을 찾으려고 여러 번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검색창을 찾아보았으나 실패했음. 홈페이지에 기사검색창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는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만일 본래 없는 것이라면 정보검색 원활을 위해 만들어 주시고, 찾기 힘든 곳에 있다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 메뉴 디자인과 검색창 위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람(최진녕 위원)

▲ 긍정적인 평가

- 7월 3일 뉴스현장 14에서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 패널로 나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거는 기대와 우려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북·중, 중·미, 중·일 관계의 전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의미 해석,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짚어주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성낙용 위원)
- 7월 7일 지방시대에서 마철 야생버섯에 대한 정보는 버섯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양한 화면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생활정보가 되었음. 특히 독버섯은 알려진 것과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색깔로 구분하기는 힘들며 조리법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는 등의 상세한 정보는 유익했음(성낙용 위원)
- 해외 영상에세이. '밤 밝힌 슈퍼문' 세계 곳곳의 보름달 장면을 음악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영상을 연출하여 건조한 뉴스가 대부분인 방송에서 좋은 볼거리였음. 프로그램 말미 등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상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좋

을 뜻함(성낙용 위원)

- 다문화 가족 주거개선과 의료지원 등을 하는 감명 깊은 프로그램 임. 이런 소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상암동 하늘 공원과 같이 현장에 리포터가 나가서 방송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함. 이런 시도는 다른 방송에 비해 매우 신선해 보이고,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기 때문에 보도의 신뢰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봄(최진녕 위원)
- 지난번에는 KTX 객실내 방송음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지적했는데, 최근 이용한 KTX내(경부선 및 호남선)에서는 비교적 좋은 음질의 방송을 즐길 수 있었음. 게다가 일부 객실에서는 일반스피커로 객실 내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뉴스Y 방송에 관심이 큰 제 입장에서는 매우 큰 개선사항으로 느껴졌음. 반면 방송에 무관심한 승객입장에서는 소리로 인해 여행에 불편을 호소할 여지도 있어 보였음.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객실 내 승객들이 편안히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음향을 찾는 추가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람(최진녕 위원)
- 7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50분, 문화체육관광부, 적십자 공익 캠페인 이후 우리 사회와 관련한 포토 뉴스의 연결이 좋았음. 특히 포토 뉴스는 연합뉴스의 정보력을 기초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7월 18일 10시 뉴스 김지수의 건강 36.5의 암보다 무서운 폐렴구균...성인도 예방접종 내용에서 뉴스의 보도 기능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국민의 보건(질병), 안전에 대한 예방 및 보장에 대한 것임. 이에 매주 금요일마다 뉴스와이 9에서 방영되고 있는 <김지수의 건강 36.5>는 국민 건강·질병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임. 최근 '폐렴구균' 확산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무려 8종에 달하는 항생제가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소아·노년층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계가 필요한 시점임. 이를 시청자(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알기 쉽게 앵커와 의학전문기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뉴스를 전달한 점과 기존 건강 관련 뉴스가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것에 반해 기자의 전문적 브리핑, 관련 인터뷰, 통계 등 입체적으로 뉴스를 구성하여 경각심과 정보를 동시에 전달한 유익한 보도였다고 느낌. 의학(과학)보도 등과 같이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한 내용을 보다 쉽게 구성하여 전달했다는 것이 바람직. 앞으로 이런 지식 전문 보도가 점차 늘어야 한다고 생각함(이헌규 위원)
- 뉴스 보도에 수화통역 방송은 아주 바람직함. 타 매체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 보임. 점차 확대되길 바람(이헌규 위원)